

## ▶ 논술(KU논술우수자)

[문항카드 4 - 논술(KU논술우수자)\_인문사회 I]

###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 I / 문제 1, 문제 2				
출제 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교육과정 과목명</td> <td style="padding: 5px;">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 경제</td> </tr> <tr> <td style="padding: 5px;">핵심개념 및 용어</td> <td style="padding: 5px;">양극화, 하위 존재, 약자, 도시 생태계, 리비히의 법칙, 윤리적 삶, 예의, 겸손, 존중, 고립과 단절, 이해, 공감</td> </tr> </table>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양극화, 하위 존재, 약자, 도시 생태계, 리비히의 법칙, 윤리적 삶, 예의, 겸손, 존중, 고립과 단절, 이해, 공감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양극화, 하위 존재, 약자, 도시 생태계, 리비히의 법칙, 윤리적 삶, 예의, 겸손, 존중, 고립과 단절, 이해, 공감				
예상 소요 시간	100분				

### 2.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대]의 자료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히가 1840년에 주장했고, 다른 말로 ‘최소량의 법칙’이라 부른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최소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히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 도시도 생태계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싼 집, 헌 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 [내]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다람쥐나 딱따구리, 고슴도치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말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지나칠 리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율은 불가피하게 여러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고, 또 매우 어려운 계명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으뜸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20세기의 축산 산업에서 발견되는 동물에 대한 태도와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역겹고 비윤리적이며, 이 사회에 끝없는 악운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윤리적 삶이란 진지하게 마음을 쓰고, 예절을 지키며, 기품을 갖춘 삶입니다. 온갖 도덕적 결함을 가진 성격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생각이 인색한 것으로, 이것은 모든 형태의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자연에 대해 무례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種)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인디언의 삶을 연구하는 리처드 넬슨은, 아타파스카족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아라. 그건 무례한 일이란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냥 등으로 거두어들인 어떤 생명체의 육신이든지 간에 한 부분도 낭비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성취했다고 뽐내거나,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숨씨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지요.

야생 세계의 예절이 요구하는 것은 너그름만이 아니라 불편함을 명랑하게 감내하는 기분 좋은 강인함과,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겸손입니다.

- 고등학교 『독서』

[대]

(1)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이유(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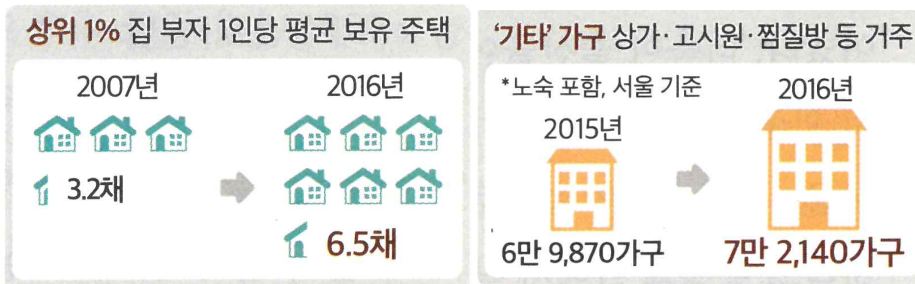
구분	소득 수준			
	하	중하	중상	상
미치료율(%)	21.2	20.4	17.2	15.5
경제적 이유(%)	29.9	18.2	10.5	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고등학교 『통합사회』

(2)

주거 상황의 변화



(통계청, 2017)

- 고등학교 『한국사』

[래]

※ **앞부분 줄거리** : 도시에서 사는 아내와 남편은 점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바닷가 빈촌에서 성장한 아내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성장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유를 꿈꾸던 아내는 마침내 침묵한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두색 피멍이 생기고, 그것은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에 퍼진다. 음식도 먹지 않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 좋아하던 아내는 점점 나무로 변해 간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처음엔 놀라지만 그녀를 정성껏 돌본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아내는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어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지난겨울 여기 올라오셨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자주색 스웨터 말예요.

그이가 출장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오한이 들길래 그 옷을 입어 보았어요. 제때 빨아 두지 않았던 덕분에 묵은 반찬 냄새며 어머니 살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빨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추워서, 또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냥 입고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까지 오한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목말랐는지, 마침내 아침 햇빛이 안방 유리창에 비칠 때 나는 소리를 죽여 울었답니다. 그 따뜻한 빛을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 옷을 벗었어요. 별거벗은 살에 내리박히는 햇빛이 꼭 어머니 살내 같아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어머니만 불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칠일까, 몇 주일일까, 아니면 몇 달일까요. 제법 대기가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기가 가시고,

그 뒤로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멀리 중랑천 너머 아파트의 창문들은 지금쯤 주황빛으로 밝혀졌겠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간선 도로에서 전조등을 내쫓으며 달려가는 차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 와서 거기 나를 심어 주었어요.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앉아 진딧물도 잡아 줘요.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뒷산 약수를 길어 와서 내 다리에 부어 준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 흙을 한 아름 사 와서 같이주었어요. 비가 내린 다음 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어 준답니다. (중략)

\*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아, 그 맛난 냄새. 참기름 냄새, 볶은 깨 냄새. 내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지요.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더럽히곤 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보슬비가 뿌리던 봄날 아버지가 모는 경운기에 실려 바닷가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향해 웃어 주시던 우비 차림의 어른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서는 강충강충 뛰며 손 흔들며 대던 아이들의 얼굴이 팔랑개비처럼 맴돌아요.

어머니한테 세상은 그 바닷가 빈촌이지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지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늙어 오셨어요. 인젠가는 그곳의 선산 기슭에 아버지와 나란히 누우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처럼 될까 봐 나는 멀리멀리 여기까지 떠나왔어요. 열일곱 살 때였지요.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넘게 헤매 다녔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을 잇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시가지의 휘황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았어요.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놓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끈질긴 혼령이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으면 소리 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바보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

내 내장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 바람 소리 같은 것만 쇠쇠 메아리친다고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청진기를 두들기며 그 늙은 의사가 증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청진기를 탁자에 올려놓은 의사는 초음파 검사기의 흑백 모니터를 틀었어요. 누워 있는 내 배에 희고 차가운 유액을 바르고는, 막대기처럼 생긴 차가운 기구로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살갓을 차근차근 문질러 내려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장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양이었어요.

노말\*인데.

쫓, 하고 입맛을 다시며 의사가 증얼거렸지요.

지금 보이는 게 위장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노말'이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위, 간, 자궁, 콩팥 모두 정상인데.

그것들이 모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휴지를 몇 장 뽑아 유액을 대충 닦아 주더니, 일어나려고 하는 나에게 다시 누워 보라고 하고는 별반 아프지 않은 배 이곳저곳을 꼭꼭 누르기만 했어요. 아파? 하고 대뜸 반말로 묻는 그의 안경 쓴 얼굴을 쏘아보며 나는 연신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안 아프고?

안 아파요.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토약질\*을 했어요. 지하철 구내의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았어요. 통증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 의사가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스님 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나, 둘, 셋, 넷, 토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한없이 평화롭게……. 기어이 눈물이 솟구칠 때까지 통증은 멈추지 않고, 거푸 위액을 게워 낸 뒤 엉덩이를 깔고 주저앉았어요. 흔들리는 지상이 제발, 멈추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얼마나 먼 날의 일이었을까요.

\*

어머니, 자꾸만 같은 꿈을 꾸어요. 내 키가 미루나무만큼 드높게 자라나는 꿈어요. 베란다 천장을 뚫고 윗집 베란다를 지나, 십오층, 십육층을 지나 옥상 위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아, 그 생장점\* 끝에서 흰 애벌레 같은 꽃이 꼬물꼬물 피어나는 거예요. 터질 듯 팽팽한 물관 가득 맑은 물을 퍼 올리며, 온 가지를 힘껏 벌리고 가슴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밤마다 그 꿈을 꾸어요.

\*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풀벌레가 죽어 갔는지, 얼마나 많은 뱀이 허물을 벗었고 어떤 개구리들은 일찌감치 겨울잠에 들었는지요.

자꾸만 어머니 스웨터 생각이 나요. 어머니 살냄새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이더러 그 옷으로 내 몸을 덮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이는 말라 가는 나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시지요, 그이한테 가족은 나뿐이었어요. 그이가 부어 주는 약수에 따뜻한 눈물이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불끈 쥔 주먹이 겨냥할 곳 없어 허공을 휘저어 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

어머니, 무서워요. 내 사지를 떨구어야 해요. 이 화분은 너무 좁고 딱딱해요. 뻗어 나간 뿌리 끝이 아파요. 어머니,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죽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피어나지 못 하겠지요.

-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 명치: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 노말(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 토약질: 먹은 것을 게워 냄. 또는 그런 일.
- 생장점: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있으며 생장을 현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

- 고등학교 『문학』